

코로나 위기속 5G기반 다진 이통사, 하반기 실적 '맑음'

이통3사 1·4분기 실적

SKT 신사업 성장에 매출 2.7% ↑
미디어·보안 등 뉴비즈 영역 성장세

중저가 5G스마트폰 긍정적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이동통신사들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여파가 이동통신사의 유통망과 로밍 시장을 강타했기 때문.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부담과 마케팅 비용의 여파도 1·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7일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1·4분기 실적발표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이날 연결 기준 매출 4조 4504억원, 영업이익 3020억원, 순이익 306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G 가입자 증가 및 신사업 부문 성장으로 2.7% 늘었



지만, 영업이익은 5G 주파수 비용을 포함한 5G 네트워크 투자 비용 등으로 6.4% 감소했다.

◆SKT "5G 가입자 265만명 확보...신규 서비스 발굴에 몰두"

SK텔레콤은 이날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 265만명을 확보해 전체 시장의 45%를 차지했다"며 "MNO(이동통신)

매출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5G 확대 이외에도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예상보다 10~20%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연말 가입자도 600만~70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10~1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4분기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집행 비용의 회계 이연 등에 따라 5G 상용화 직전인 지난해 동기 대비 13.5% 늘어난 7565억원을 기록했다. 전기 대비로는 6.7% 감소했다.

윤풍영 SK텔레콤코퍼레이트센터장은 "설비투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전체 규모 증가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주력 사업인 MNO 부문은 타격을 입었지만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뉴비즈 영역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띈

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터넷TV(IPTV) 이용 시간도 늘면서 IPTV 사업이 성장한 것이 눈에 띈다.

SK브로드밴드의 1·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난 8235억원을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티브로드의 합병을 완료하고, 821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했다. 올해 합병법인은 미디어 플랫폼 고도화와 IPTV와 케이블TV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합상품을 제공해 4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다.

보안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던 반면, 재택근무 증가로 IT 보안 솔루션이 증가하고 홈보안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 상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SK텔레콤 측은 설명했다.

◆이통3사, 올해 5G 본격 반등 기대

경쟁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애플 엔가이드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9%까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1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매출액 6조650억원으로 같은 기간 4%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3587억원으로 1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의 예상 매출액은 3조 2594억원으로 7.9% 늘지만, 영업이익은 1802억원으로 7.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동통신사는 올 하반기부터는 5G 가입자 유입으로 가입자당평균 수익(ARPU)의 본격적인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5G 가입자의 1인당 데이터 트래픽은 LTE 가입자의 9.5GB 대비 2.7배 많은 수준이다.

최근 고가 5G 스마트폰 외에 삼성, 애플 등에서 중저가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5G 가입자 유입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ARPU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이통3사, 'LG벨벳' 예약판매 돌입

SKT 체험행사 KT 5시 핫딜 LGU+ 0원 이벤트

SKT 1300개 매장에서 체험존
KT 1만원에 구매 기회 제공
LGU+ '0원으로 삽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LG전자의 새 스마트폰 'LG벨벳'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일은 오는 15일이다.

LG벨벳은 LG전자가 디자인에 역점을 둔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이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의 후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구부려 손에 감기는 최적화된 그림감을 제공하는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6.8인치 20.5:9 화면비의 시네마 풀비전 디스플레이에 스테레오 스피커와 인공지능 사운드, 올레드 시네마 뷰를 탑재했다. 8GB 램(RAM)과 퀄컴의 5G 통합칩 '스냅드래곤 765 5G'가 탑재됐으며, 180g의 무게에 43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했다. 색상은 오로라 화이트, 오로라 그레이, 오로라 그린, 일루전 섀넬 총 네 가지로 제공된다.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전국 SK텔레콤 T월드 매장 1300여곳에서 별도 체험



LG유플러스 모델들이 'LG벨벳'을 홍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존도 운영한다. 또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서 '나의 벨벳 타임은?' 이벤트를 연다.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면 추첨을 통해 ▲LG 벨벳 50만원 할인쿠폰 ▲투썸플레이스 레드벨벳 케이크 ▲편의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KT는 LG 벨벳 출시를 기념해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5시 핫딜' 이벤트를 연다. 12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LG 벨벳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T슈퍼할부2신한카드'를 사용하면 월 1만5000원씩 2개월간 통신비 36만원을 할인(전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마스터카드 한정)받을 수 있다. 또 6월 말까지 LG 페이로 제휴카드 30만원 이상 사

용하면, 추가 캐시백 11만원을 제공받아 최대 47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유샵워크' 이벤트를 연다. 추첨을 통해 ▲LG벨벳 0원 구매 ▲1년 통신비 0원 ▲LG 시네마빔 0원 구매 등 '0원으로 삽니다'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25%·LTE 그대로 약정할인 6%·LG U+ 패밀리 하나카드 20% 할인 등 총 '51% 요금 할인받고 삽니다'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사전 예약기간 자사 매장이거나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LG벨벳을 구매하면, LG생활건강 뷰티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인 네이처컬렉션과 더페이 스텍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 및 색조 제품 50% 할인권을 기본 지급한다.

/김나인 기자

날개 펼치는 대한항공... 국제선 추가 운항 재개

32개 노선 6월 한달간 운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제선 대부분이 멈춰섰던 대한항공이 운항 재개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7일 내달부터 일부 중단했던 국제선을 다시 추가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10개 노선 가운데 32개 노선을 6월 한달간 운영하고, 78개 노선은 운항을 유지한다. 이 같은 운항 재개의 배경에는 코로나19의 완화 추세가 자리한다. 대한항공은 각국의 코로나19 완화 이후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추가

운항 사유를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항공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노선 및 공급량이 확대됐고, 여객과 화물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모하비를 넘어선 모하비... '그래비티' 출시

기존 최상위 트림 바탕 차별화

5인승 5547만원, 6인승 5652만원



모하비 더 마스터 그래비티.

기아자동차가 7일 모하비 더 마스터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에 추가된 그래비티는 기존 모하비 더 마스터의 최상위 트림 '마스터즈'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실내·외 고급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그래비티 모델에 신규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블랙 도장 20인치 휠을 기본 적용해 강인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신규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은 화살촉에서 영감을 받아 강인하고 세련된 느낌을 조형이 반복적으로 배치돼 전면부의 주간주행등과 모하비 엠블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블랙 도장 20인치 휠은 눈꽃 결정체를 형상화한 6 스포크(바퀴살) 디자인

으로 기아차의 최상급 SUV다운 당당함을 드러낸다.

실내는 스티어링 휠, 센터 콘솔(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있는 수납공간), 1·2열 도어 암레스트 및 도어 센터 트림(문쪽 팔걸이 및 문 안쪽 부분)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은 고급 소재 '알칸타라'를 입히고 동승석 크래시 패드에만 적용했던 무드 램프를 1열 양쪽 도어 트림까지 확장시켜 고급감을 높였다.

그래비티 모델의 가격은 5인승 5547만원, 6인승 5652만원, 7인승 5612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샵에선 온라인 전용 할인 혜택이 '핑핑'

단말 바로 사용 'KT다이렉트' 오픈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온라인 전용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KT다이렉트'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이용자는 KT다이렉트를 통해 구매한 유심을 단말에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KT다이렉트는 7일 오픈과 동시에 온라인에서만 가입 가능한 5G·LTE 요금제를 신한은행과 제휴를 통해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약정이 없다. 신규 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6월 30일까지 가입하면, 프로모션 혜택으로 해지 시까지 최대 1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 모델이 KT다이렉트를 소개하고 있다.

/KT

'5G 다이렉트 신한 SOL' 요금제는 월 5만7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이용할 수 있는 5G 무제한 요금제다.

'LTE 다이렉트 신한 SOL' 요금제는 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 5만8000원에 프로모션 8000원 할인을 적용한 금액이다.

/김나인기자